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7. 20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데이터분석팀장	유정호	☎ 760-726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농업에 인공지능이 들어온다..지능형 영농 대전환

- 민선 9기 AX 과제, 데이터·의사결정·행정·기후대응 4개 축 동시 추진 -

- 제주어와 고령 농업인의 말투까지 알아듣는 영농기록장이 제주 농업 현장에 들어선다. 농업인이 말로 남긴 기록은 그대로 농업 데이터로 쌓이고, 감귤·당근에 이어 월동무·양배추·브로콜리도 생산량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돼 자율적 수급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민선9기 핵심과제인 ‘인공지능 전환(AX)’ 정책에 맞춰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(DX)을 인공지능 전환(AX)으로 고도화하고, 농업인이 체감하는 인공지능(AI)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.
- 토대는 이미 깔렸다. ‘제주DA’ 플랫폼은 1단계에서 농업 데이터 34종을 통합하고 156개 지점에 사물인터넷(IoT) 기반 현장 인프라를 구축했다.
 - 이를 기반으로 7개 분야 정보서비스와 농업인 전용 앱을 개발한 성과로 제42회 지역정보화 경진대회 대통령상과 2025년 농업기술 보급혁신 대상을 받았다.
- 민선 9기 도정은 데이터 수집·관리 체계 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 도입해 농업 현장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농업 AX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.
- 먼저 농업 AX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다.

- 기존 34종인 데이터를 40종으로 늘리고, 인공지능 영농일지를 도입해 데이터를 정제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에 쓸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로 만든다.
- 1단계의 시나리오 기반 음성인식 영농일지는 인공지능 기반 영농기록장으로 발전시켜 제주어와 고령 농업인의 비표준어까지 인식하도록 개선하고, 음성 기록이 자동으로 농업 데이터로 축적되는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.

□ 인공지능 기반 현장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도 다양해진다.

- 농업인의 영농 판단을 돕는 정보서비스는 기존 14종에서 18종으로 늘어난다. 더불어 자율적 수급관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노지감귤과 당근에 적용하던 생산량 예측 모델은 월동무와 양배추, 브로콜리까지 확대 개발한다.
- 전국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기반 경영분석 현장 컨설팅도 하반기 본격 진행된다. 농가 경영 정보와 전문가가 구성한 프롬프트를 활용해 240농가에 인공지능 기반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.

□ 농업인 편의를 겨냥한 원스톱 업무 자동화도 본격화된다.

- 사업 지침상 자격만 갖추면 신청되는 사업은 제주DA앱을 통해 단계적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
- 올해 상반기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에 이어, 하반기에는 농업인 교육 접수와 미생물 사업 신청, 토양검정 의뢰도 앱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.

- 돌발해충 발생 시 자동 예찰체계를 구현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빠르게 마련할 수 있게 됐다.
- 과거 제주에 영향을 미친 태풍 피해 이력을 분석해 태풍 직후 피

해 작물과 규모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.

-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농업인이 말로 남긴 기록이 데이터가 되고, 그 데이터가 다시 영농 판단을 돕는 구조를 만들겠다”며 “특히 출원과 민·관·학 협력으로 제주형 농업 인공지능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겠다”고 말했다.